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5일 앞둔 2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회화나무숲 일원에서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광주시민추모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스

‘1091일의 설움’... 광주서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대회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주제... 3년 전 참사 최초 신고 시각인 오후 6시34분에 맞춰 엄수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광주에서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1091일 전 그날의 진실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기로 재차 다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는 24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숲 일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광주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주제로 열린 추모식은 3년 전 참사 최초 신고 시각인 오후 6시34분에 맞춰 엄수됐다.

추모식에는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일반 추모객 등 200여명이 모였다.

추모식은 라르브르 앙상블의 추모공연,

김현서 로즈마리 수녀의 ‘슬픔 속 작은 기도’ 시낭송, 인사말, 추모사, 유가족 발언, 연대발언,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3주기를 불과 닷새 앞둔 이날 유가족들은 애써 답답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숙연하게 추모객들을 맞았다.

생때같은 자식,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벌써 1000일 하고도 91일을 넘긴 유가족들은 차오르는 슬픔을 애써 억눌렀다.

일부 유가족들은 추모사 도중 억눌러온 슬픔을 참을 수 없는 듯 오열하며 먼저 떠나간 가족들을 애대해 그리워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영백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장은 “연대의 힘 덕분에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6월부터 조사가 시작됐지만 3주기가 되도록 아직

까지 유가족들이 억울해 하고 궁금해 하는 9가지 질문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참사의 진상 규명이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추모식에는 159명이 희생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정의를 바로세우자는 뜻을 담았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며 “오는 25일부터 서울에서 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를 연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유가족 협의회 부회장도 사회에 안전과 책임을 되묻고자 발언대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제도적 변화가 더디지만 하다. 정부는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움직인 유가족들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159명의 희생은 슬픔으로만 남아선

안된다. 사회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약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유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도 연대발언을 통해 “가족을 잃고 난 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며 “이태원의 별들이, 세월호의 아이들이 다시 이런 죽음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길 바라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름들은 결코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부모였던, 사랑을 주고받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며 “잊지 말아달라. 이 싸움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연대 뜻을 다졌다.

/기동취재부

대형 투자사업 해남 솔라시도, 산업용지 연약지반 다진다 2027년까지 산업시설용지 396만㎡ 부지 조성

전남도는 과기정통부의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와 오픈AI·SK 인공지능 전용데이터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산업용지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부지 조성 공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솔라시도는 2005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 온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해남 구성지구·영암 삼호지구와 삼포지구 등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매립지여서 연약지반이 존재한다.

산업시설 용지 중 남쪽 데이터센터(예정 부지) 방향은 119만㎡ 중 78만㎡가, 북쪽 골프장과 주택 단지 등의 계획부지는 278만㎡ 중 246만㎡가 연약지반이다. 해당 지역 연약지반 처리 공사에는 267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전체부지가 아닌 사업이 예정된 부지를 우선으로 연약지반 처리 등의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민관 출자와 정책금융 대출 등을 합쳐 총 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2028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부지 제공 시기를 내년 4월로 보고 해당 기간 내 부지 조성 기반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오픈AI·SK 인공지능 전용데이터센터의 경우 해당 기업과 설립 시기, 부지면적 등 구체적 계획을 협의 중이다.

전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산업시설용지 396만㎡의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산업시설용지 추가 수요 발생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모든 공사현장에는 연약지반이 존재한다. 솔라시도의 경우 매립지인 만큼 더욱 그렇다”며 “흙을 쌓아 올리는 등의 공사 과정을 거치면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5년새 ‘소나무재선충’ 감염 12배 늘어

전남도 증가세... 치료제 없고 감염시 100%고사해 치명적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재선충의 광주·전남 지역 감염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각각 12배,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 소나무재선충 감염사례는 지난 2021년 2만 3052구에서 올해 5월 기준 4만4056구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도 같은 기간 208건에서 3432건으로 늘었다.

전남 지역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같은 기간 2만3052구, 2만1067구, 2만5662구, 2만1087구, 4만4056구이다.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광주 지역 감염 건수도 5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했다. 감염된 나무는 같은 기간 280구, 764구, 3520구, 1739구, 3432구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3년까지 광산구를 제외하고 소나무재선충 감염 사례가 드물었으나 지난 2024년부터 남·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남·북구 지역 소나무재선충 감염률은 지난 2024년 각 262.2

구, 50.2구에서 올해 최근까지 402.2구, 151.2구로 늘었다. 특히 광산구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감염된 나무가 1000~3000구로 늘었다.

전남 신안 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과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가 청정지역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8년 만에 재발했다. 재선충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 소나무류에 침입해 수분·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해충이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고 감염시 100% 고사해 치명적인 산림병으로 알려져 있다. 복미 원산지인 외래 침입종 재선충은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감염세가 잦아들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급증 원인은 국제 교역이 확대되고 기후변화·가뭄 등으로 산림 저항성이 약화되면서 해충의 월동과 활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